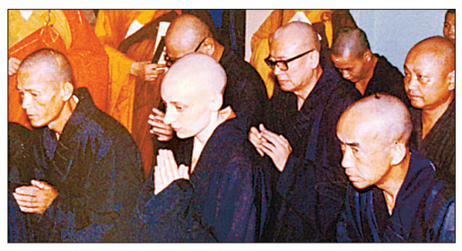
“세계 여성 계몽, 한국불교 앞장 서길”



1980년대 히말라야 토굴서 수행하는 스님 모습.
사진출처=tenzinpalmo.com



2017년 샤카디타 홍콩대회서 한국 비구니 스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텐진 빠모 스님(사진 오른쪽 두번째). 사진 오른쪽 첫번째는 렉소 소모 스님. 사진제공=샤카디타코리아 사무국



1973년 홍콩서 비구니계를 받는 텐진 빠모 스님.
사진출처=tenzinpalmo.com



2017년 샤카디타대회서 한국불자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제공=샤카디타코리아 사무국

‘텐진 빠모 스님’ B1면에서 계속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 순간으로 들어오고, 이 순간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Q 불교는 어떻게 보면 여성수행자에 대한 위상이 높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성차별이 있는 상황입니다. 스님께서는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세계 여성불자들도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불자들이 받는 차별, 혹은 사회적 편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불자들이 이런 편견을 없애 나갈 수 있을까요. 또한 세계 여성불자들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A 여성이 정치적인 선거에 참여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성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보편화된 것은 최근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음으로써 생긴 문제는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가 없었던 것에서 기인했습니다. 특히 글을, 책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세계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책을 쓸 수 없으니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책도 없었습니다.

글을 쓸 수 없는 사회의 여성들은 조용히 살았어야만 했죠. 인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인도 나란다 대학의 경우도 1만여 명의 비구 스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의 학자, 통역가들도 여기서 글을 썼는데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구니 스님들이 없었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의 중요한 주석들, 가령 〈이보리행론〉같은 주석들은 항상 비구 스님들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도, 책에 보면 여성 몸이 열등하고 더럽고 오염됐고 부끄러움의 대상이라고 나오니까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여성이 제일 바랄 수 있는 것은 이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관점 등 이런 견해밖에 주어진 게 없어서 굉장히 깊은 열등감을 갖고 자존감이 약화됐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20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비구니 스님들이 교육 수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티베트, 네팔, 부탄에서는 스님들이 수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 비구니 사원에서, 가령 3년간 무문관 수행도 하고, 교학도 공부하고 논쟁에도 참여합니다. 인도나 네팔에서는 비구니가 아닌 여성 스님이라고 칭하는데, 20년 간 교학 체계를 밟으면서 ‘게쌰(선지식)’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간 공부해야 받을 수 있는 계쌰 학위는 박사 학위와 비슷한데, 지금까지는 여성 스님 가운데 계쌰 학위를 딴 스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독일출신 비구니 스님이 학위를 땄습니다.

지금은 게쌰마 등 높은 직위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교학 공부와 수행의 균형이 바로 비구니 스님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게 보는 눈으로부터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모든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여성 수행자들이 스승이 되고, 이미 가르침을 주고받고 있지만, 일반적인 세상에 나와 스승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 한국불교에서 여성불자라고 하면 기복으로 대변되는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많은 자각 있는 여성불자들이 이끌어 가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가족을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A 모든 종교에서는 어떤 대상이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나무 · 하나님 · 천사 · 관세음보살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불자 내면의 힘 발휘
한국불교는 여성불자 활동 강해
세계불교계 성차별 폐지 기여를
남녀 갈등 · 인간 기준 보면 풀려
일상 생활 속 마음챙김 강조

기도하는 이유는 내면의 깊은 신성한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주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사실 우리 안에 있고,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불자들이 사찰에 찾아가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목적은 깨달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깨달음에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라며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죠.

여기서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내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범위를 넓혀서 내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도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벗과 원수를 가리지 않고 지인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별 없이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여자든, 남자든, 어떤 성별이든, 불자든 아니든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을 잘 활용해서 마음을 길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라, 집, 몸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집을 꾸미고 머무는 방도 좋게 만들고, 장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보기 좋게 만듭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씻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 몸도 많이 보기 좋게 보살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또한 다른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게 장식하고, 여유롭게 공간을 넓히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마음을 머물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신경을 쓰나요?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길들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고 하셨어요. 길들인 마음이 행복의 원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길들여야 좋은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전쟁, 갈등, 빈부격차 등 모든 안 좋은 일들은 길들이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환경 파괴, 공기, 물, 동식물, 지상, 인간들에 해를 주는 사람들은 길들이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한 것입니다. 권력자들 역시 마음을 길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불교를 떠나서 우리는 좋은 인간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먼저 길들여야 합니다.

Q 최근 한국사회는 남녀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서로 간 비난과 비하 등을 하는 풍조가 자리잡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성별을 넘어선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양성에서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가장 크게 작용할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독자들에게 좋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온 세상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공격성과 경쟁심, 야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구를 파괴하고 있고, 지구상 생명을 해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뇌, 욕심, 증오, 질투, 오만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지구에 사는 정신없는 사람들(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무지’ 입니다. 본성을 모르고, 본성 아닌 것에 집착하고 ‘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아인슈타인이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많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듯,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몹시 그렇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실상과 고를 알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성제를 통해 해탈로 가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겪는 문제들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왜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부터 이미 넘어선 존재인 우리가 인지해야한다면서,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깊은 삼매에 들지 못하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더 깨어날 수,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할 수 있죠. 그냥 인간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사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법입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륜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